

八物君子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박병주* · 권진혁* · 이준희 · 이의주 · 고병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Palmulgunja-tang*

Byung-Joo Park^{*}, Jin-Hyuk Kwon^{*}, Jun-Hee Lee, Eui-Ju Lee, Byung-Hee Koh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Medical Center Oriental Hospital

1. Objectiv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igin, the progressive changes and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Palmulgunja-tang (八物君子湯).

2. Methods

Palmulgunja-tang and other related prescrip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pathological indications,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including 『Donguisusebowon·Chobongwon (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uisusebowon·Gabobon (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and 『Dongmuyugo (東武遺稿)』.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Palmulgunja-tang most likely originates from Paljin-tang introduced in 『Donguisusebowon·Chobongwon (東醫壽世保元·草本卷)』. Paljin-tang progressively transformed into Seungyangpalmul-tang (『Donguisusebowon·Gabobon (東醫壽世保元·甲午本)』) and ultimately into Palmulgunja-tang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a prescription appropriate for usage in the Ulgwang symptomatology (鬱狂證). Also, Seungyangikgi-tang in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can be presumed to have been affected by Seungyangpalmul-tang.
- 2) The variational prescriptions (變方) of Palmulgunja-tang shows increasing Seungyang (升陽) effect in order of Baekhaogunja-tang, Sipjeondaabo-tang, Palmulgunja-tang, and Doksampalmul-tang.
- 3) Palmulgunja-tang is composed of 8 herbs. Of these, *Paconiae Radix Alba* (白芍藥), *Glycyrrhizae Radix*(甘草),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and *Cnidii Rhizoma* (川芎) fortify the Soeumin Spleen Element (脾元). *Ginseng Radix* (人蔘) and *Astragali Radix* (黃芪) support the ascension of Yang, whereas *Atractlodis Rhizoma* White (白朮) and *Citrus unshiu* (陳皮) encourage the descension of Yin.

Key Words : Palmulgunja-tang (Bawujunzhe-tang), *Variational prescriptions of Palmulgunja-tang* (Bawujunzhe-tang), *Ascension of Yang*

• 접수일 2010년 07월 29일; 심사일 2010년 08월 06일;
승인일 2010년 08월 23일
• 교신저자 : 이의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mc.or.kr

I. 緒 論

八物君子湯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가운데 하나로¹⁾ 少陰人의 表病 중 鬱狂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八物君子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옥¹⁾의 사상 방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와 배²⁾의 少陰人 약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八物君子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八物君子湯과 관련하여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비교 연구하여 八物君子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작은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 본 연구는 東武의 著作으로 알려진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은 『甲午本』이라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辛丑本』이라 약칭한다.
- 東武의 저술 순서(『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에 따라 각 저서별로 八物君子湯의 기원이 될 만한 처방 및 병증을 살펴보고 八物君子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에 대해 고찰한다.
-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사상체질과 임상편람』을 기준으로 한다.

III. 本 論

1. 基源 및 變遷

-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八物君子湯 人參 二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1)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八珍湯

『草本卷』에서 八物君子湯과 구성 약물이 비슷한 처방을 찾으면 八珍湯과 補中益氣湯을 들 수 있다. 八珍湯²⁾은 人參 白朮 炙甘草 白何烏 當歸 川芎 白芍藥 砂仁 으로 구성되었으며 八物君子湯과 비교하면 白何首烏와 砂仁을 제외한 6개의 약물이 일치한다. 補中益氣湯³⁾은 黃芪蜜灸 人參 炙甘草 白朮 當歸 陳皮로 구성되어 6개의 약물이 모두 八物君子湯에 속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補中益氣湯은 『草本卷』 이후에도 『甲午本』과 『辛丑本』까지 같은 처방명이 유지되며 변천되는 것으로 보아 八物君子湯의 기원 처방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八珍湯은 처방 구성 뿐 아니라, 처방명에서도 八物君子湯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두 처방 모두 8개의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처방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뒤에 八珍湯의 변천과정으로 언급될 『甲午本』의 升陽八物湯 역시 이 두 처방과 같이 8개의 약물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처방 구성, 처방명을 바탕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草本卷』에서 八物君子湯의 기원 처방으로 생각되는 것은 八珍湯이다.

『草本卷』에서는 肺脾肝腎의 기능에 대하여 ‘脾는 수곡을 納하고 腎은 水穀을 出한다, 肝은 氣液을 充하고 肺는 氣液을 散한다⁴⁾, ‘穀道의 대사과정에서 上下의 溫冷이 발생한다⁵⁾ ‘水穀을 納하는 胃와 水穀을 出하는 大腸의 편차에 의해 少陰人은 寒氣가 잘 생긴다⁶⁾, ‘少陰人藥은 溫裏한다.’⁷⁾고 제시하

2) 『草本卷』13-25 四物湯 治脾元損傷 本方 加 蘇葉 陳皮 名曰 安胎飲 治孕婦病 加 小茴香 川楝子 五靈脂 治裏急疝氣 四君子 合 四物湯 名曰 八珍湯 加 桂皮 黃芪 名 十全大補湯 俱治少陰人虛勞 當歸 川芎 白芍藥 砂仁 各一錢

3) 『草本卷』13-27 補中益氣湯 治內傷頭痛 眩暈 憎寒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 黃芪蜜灸 三錢 人參 炙甘草 各一錢 白朮 當歸 各七分 陳皮 五分

4) 『草本卷』 「原人之第五統」脾以納 腎以出 脾腎者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散充氣道之門戶也.

5) 『草本卷』 「原人之第五統」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6) 『草本卷』 「病變之第五統」少陰人泄穀之大腸潤而水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泉益來則寒氣易生也,

7) 『草本卷』 「病變之第六統」少陰之藥 宜溫裏而不宜

였다. 이를 통해 볼 때 八珍湯을 포함함 少陰人藥은 寒氣가 쉽게 생기는 少陰人에게 사용하여 溫裏 한다는 개념을 깔고 있다. 더욱이 八珍湯은 『草本卷』에서 언급한대로 脾元 損傷을 치료하는 四物湯⁸⁾과 四君子湯의 합방이라는 점에서 寒氣가 쉽게 생기는 少陰人의 脾元을 강화하는 처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草本卷』에서는 八珍湯과 함께 十全大補湯을 제시하고 있다. 十全大補湯은 八珍湯에 桂皮와 黃芪를 더한 처방으로 少陰人의 虛勞를 치료한다. 十全大補湯은 八珍湯을 기원 처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脾元 損傷을 막는 처방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脾元이 약해진 상태의 少陰人 虛勞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인다.

2)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升陽八物湯

『甲午本』에서 八物君子湯의 기원 처방으로 생각되는 것은 升陽八物湯⁹⁾이다. 升陽八物湯은 人蔘 2돈 黃芪 2돈 白芍藥 甘草 官桂 川芎 當歸 白朮 각 1돈 으로 구성되어있다. 八物君子湯과 비교하였을 때 黃芪가 1돈 많고, 陳皮가 없는 대신 官桂가 있으며 이외에는 처방구성이 같음을 알 수 있다.

『甲午本』은 少陰人에 대한 東武의 병증약리가 어느 정도 확립된 시기로 少陰人의 表病을 鬱狂證의 전신이 되는 太陽病 胃家實, 亡陽證의 전신이 되는 陽明病 脾約으로 바라보는 병리관이 확립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甲午本』의 篇名¹⁰⁾에서도 알 수 있듯이 表部에서 외감병이 발생하며, 발병의 근본은 각 체질의 취약 부위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여³⁾ 偏小之臟과 保命之主를 중시한다. 그리고 少陰人 表病(外感膻病)에 대한 처방으로 升陽益氣가 제시¹¹⁾ 된다. 이에 따라 少陰人의 脾元損傷을 치료하는 八

珍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砂仁과 白何首烏는 거하고,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강화와 表病의 처방인 升陽에 더욱 초점을 맞춘 官桂 黃芪를 가하여 升陽 八物湯을 창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升陽 八物湯이라는 처방명에서도 본 처방이 升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처방 구성 중 八珍湯에 비해 새로 가해진 官桂와 黃芪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官桂는 『東武遺稿』에서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라고 하였다. 즉 官桂는 偏小之臟인 脾局을 강화하면서(壯脾) 內外를 든실하게(充足內外之力)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少陰人의 偏小之臟인 脾局을 돕고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효능을 의미한다.

黃芪는 『草本卷』에서 固中實表之力¹²⁾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辛丑本』에 이어져 표병 중 汗出이 동반되는 亡陽證(黃芪桂枝湯, 升陽益氣湯, 補中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鬱狂證에 사용 될 때는 鬱狂證 중에서 澀然微汗出이 동반될 수 있는 中末證(八物君子湯, 獨蔘八物湯)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黃芪는 表病 중에서도 脾局 陽氣의 약화가 뚜렷하여 汗出이 동반되는 병증에 사용 되었다. 이는 『草本卷』에 제시된 固中實表之力의 공능과 상통하는 것으로 黃芪의 효능은 脾陽을 도와(固中) 固表止汗(實表)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黃芪의 효능은 表病의 처방인 升陽의 한 축을 이룬다.

이처럼 升陽 八物湯은 東武의 병증약리관이 확립되면서 기존의 八珍湯을 바탕으로 保命之主인 陽煖之氣(官桂), 脾陽을 도와 升陽을 이루는 表病 처방(黃芪)에 초점을 맞춘 처방으로 거듭나게 된다.

3)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八物君子湯

八物君子湯과 기원처방 및 관련 처방들의 약물 구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清腸.
8) 『草本卷』13-25 四物湯 治脾元損傷 本方 加 蘇葉 陳皮 名曰 安胎飲 治孕婦病 加 小茴香 川楝子 五靈脂 治裏急疝氣 四君子 合 四物湯 名曰 八珍湯
9) 『甲午本』 升陽八物湯 人蔘 黃芪 各二錢 白芍藥 炙甘草 官桂 川芎 當歸 白朮 各一錢 生薑 三片 大棗 二枚
10) 『甲午本』 『少陰人外感膻病論』
11) 『甲午本』6-13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12) 『草本卷』 『原人之第六統』 觀古方之用黃芪于虛汗則 黃芪有固中實表之力可知也

Table 1. Composition of Paljin-tang 『Chobongwon』, Sijeondaebo-tang 『Chobongwon』, Seungyangpalmul-tang 『Gabobon』, Palmulgunja-tang 『Sinchukbon』, Sijeondaebo-tang 『Sinchukbon』

약물	八珍湯	『草本卷』十全大補湯	升陽八物湯	八物君子湯	『辛丑本』十全大補湯
人蔘	4	4	8	8	4
白何首烏	4	4			4
黃芪		4	8	4	4
白朮	4	4	4	4	4
白芍藥	4	4	4	4	4
當歸	4	4	4	4	4
川芎	4	4	4	4	4
陳皮				4	4
甘草炙	4	4	4	4	4
生薑	3片	3片	3片	3片	3片
大棗	2枚	2枚	2枚	2枚	2枚
官桂			4		4
桂皮		4			
砂仁	4	4			

*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g(그램)을 생략한 것임.

八物君子湯은 升陽八物湯에서 官桂를 거하고 陳皮 1돈을 가하였으며 黃芪 1돈을 감한 처방이다. 이러한 변화는 『辛丑本』으로 오면서 東武의 병증약리관이 더욱 구체화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즉 『甲午本』에서는 아직 太陽病 胃家實(鬱狂證), 陽明病 脾約(亡陽證)의 처방에 대한 정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升陽益氣라는 대원칙에 근거해 升陽八物湯을 양쪽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대한 치료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 지면서 少陰病이나 亡陽證 처럼 陽煖之氣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사용하는 官桂를 빼고 흘트러진 脾氣를 바로잡는 陳皮를 더하여 鬱狂證에 더욱 특이적인 八物君子湯을 창방하게 된다. 升陽八物湯과 八物君子湯의 구성 약물 중 차이를 보이는 官桂, 陳皮, 黃芪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官桂는 『草本卷』의 처방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없다.³ 다만 『草本卷』의 十全大補湯에 桂皮를 사용하고 있다.¹³⁾

13) 『草本卷』 13-25 四物湯 治脾元損傷 本方 加 蘇葉 陳皮 名曰 安胎飲 治孕婦病 加 小茴香 川棟子 五靈脂 治裏急疝氣 四君子 合 四物湯 名曰 八珍湯 加 桂皮 黃芪 名 十全大補湯 俱治少陰人虛勞

『東武遺稿』에서는 '상한병 7일에 發汗하지 않으면 콧구멍이 그을린 듯 마르고 마침내 죽게 되니 급히 人蔘 1냥, 官桂 1냥, 炮附子 2돈을 써서 2~3첩 연속해서 복용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¹⁴⁾고 하여 急證에 人蔘, 官桂, 炮附子를 사용한 치험례를 들고 있다. 또한 少陰人의 清熱藥¹⁵⁾으로 人蔘, 官桂, 炮附子를 무리지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東武遺稿』에서는 官桂를 附子나 人蔘처럼 강하게 回陽, 補陽하는 약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甲午本』에서 官桂는 太陽病 胃家實¹⁶⁾(升陽八物湯, 獨蔘八物湯, 健脾胃湯), 陽明病 脾約¹⁷⁾(升陽八物湯, 獨蔘八物湯, 回陽大補湯, 健脾胃湯, 人蔘黃芪附子湯), 太陰病¹⁸⁾(桂附薑

14) 『東武遺稿』 20-5 傷寒病七日 不發汗 鼻孔烟煤垂死 急用人蔘一兩官桂一兩炮附子二錢 二三貼連服 則回死轉生也.

15) 『東武遺稿』 13-2 少陰 清熱 人蔘官桂炮附子也.

16) 『甲午本』 6-27 今考更定 身熱汗出不惡寒反惡熱 腹滿大便硬發狂者 謂之胃家實病 (중략) 若其病 又濺然微汗出潮熱微喘則 危證也. 此證 不更衣內實 大便難者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 濺然微汗出潮熱微喘者 當用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健脾胃湯.

17) 『甲午本』 6-21 今考更定 身熱汗自出不惡寒反惡熱 小便利者 謂之脾約病 (중략) 此證 自汗出小便利者 當用 補中益氣湯 升陽八物湯 回陽大補湯 健脾胃湯. 發熱汗多者 當用 人蔘黃芪附子湯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陳理中湯), 少陰病¹⁹⁾(桂附藿陳理中湯) 등 다양한 병증의 처방에 쓰였다.

이에 비해 『辛丑本』에서는 주로 少陰病 처방(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과 亡陽證 처방의 일부(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에 쓰이는 약물로 保命之主인 陽煖之氣가 크게 위태로울 때 사용되었다. 김²⁰⁾도 '表病證과 裏病證 모두에서 병증이 증증으로 진행될 수록 陽煖之氣가 부족해지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人蔘 附子 肉桂 등의 약물이 공통적으로 중시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辛丑本』보다는 『甲午本』에서 官桂 사용의 범주가 더욱 다양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甲午本』과 『辛丑本』의 병증 체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처방을 가지고 官桂 사용 범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불어 『甲午本』에서 官桂가 사용된 太陽病 胃家實, 太陰病 등의 병증에도 輕重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甲午本』에서는 官桂가 모든 병증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甲午本』에서 亡陽證에 人蔘, 黃芪, 官桂 등을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고²¹⁾ 한 점이나 少陰病으로 분류하였던 乾霍亂 關格病의 치험례 중 桂附藿陳理中湯 倍加人蔘 官桂 各二錢 附子二錢 或一錢의 사용은 『甲午本』에서도 官桂가 重證에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초기 저작인 『東武遺稿』에서부

터 官桂가 陽煖之氣를 강하게 복돋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甲午本』에서도 官桂를 사용한 처방의 범주는 다양하지만 역시 官桂 사용의 적응증은 병증이 重證일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辛丑本』에서는 官桂의 급하고 강력한 공능을 더욱 정확히 인식하여 陽煖之氣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鬱狂證, 太陰病 보다는 陽煖之氣가 위태로운 亡陽證, 少陰病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陳皮는 『草本卷』과 『甲午本』의 여러 처방에서 쓰였다. 『東武遺稿』에서는 陳皮를 '陳皮 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 陳皮 錯綜脾元 參伍勻調'²²⁾ 라고 하였다. 이는 흐트러진 脾元의 陽氣를 정돈하여 陰陽의 升降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 혹은 表裏陰陽을 소통시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鬱狂證은 脾陽이 크게 損傷되거나 陽煖之氣가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며 울축된 陽氣를 풀어 소통시키는 것도 중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補陽을 하는 官桂 보다 升陽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陳皮를 사용함으로써 울축된 陽氣를 풀어 鬱狂證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陽煖之氣의 손상이 중한 亡陽證과 少陰病에서 陳皮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亡陽證과 少陰病은 保命之主인 陽煖之氣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운의 소통(表裏陰陽升降) 보다는 陽煖之氣의 직접적인 보충을 중시한다. 따라서 陳皮는 陽煖之氣의 손상이 가벼운 鬱狂證과 太陰病에 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東武가 陳皮를 太陰病의 약물로 배속²³⁾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속은 陳皮를 太陰病에만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裏病人 太陰病에 배속시킨 것을 고려할 때, 表裏陰陽의 升降 중에서도 裏部の 降陰에 초점을

18) 『甲午本』 7-14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중략) 已上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 7-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중략) 此證 當用 茵陳橘皮湯 茵陳四逆湯 瘴疽丸 又當用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19) 『甲午本』 甲7-48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內守胸膈胃中之胃氣虛弱 冷氣內侵 下利不止之證也. (중략) 已上諸證 不當用 麻黃附子細辛甘草湯而當用 獨參蘇葉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不必用 單薑附四逆湯而當用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20) Kim JH, Song JM. A Study about modification of Gejitang that showed on symptom and prescription about Soumi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201- 220.(Korean). 219p

21) 『甲午本』6-19 論曰 少陰人汗 當觀於人中之汗不汗也. (중략) 少陰人病 亡陽最可惡也. 當用 蔘芪桂急救之 不可等閑任置也.

22) 『東武遺稿』 陳皮 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 陳皮 錯綜脾元 參伍勻調

23) 『辛丑本』 窮巷僻村 病起倉卒 雖單方 猶百勝於束手無策
陽明病 雖單黃芪 桂皮 人蔘 芍藥 亦可用
少陰病 雖單附子 芍藥 人蔘 甘草 亦可用
太陽病 雖單蘇葉 蔥白 黃芪 桂枝 亦可用
太陰病 雖單白朮 乾薑 陳皮 藿香 亦可用

Table 2. Composition of Seungyangpalmul-tang, Seungyangikki-tang, Hwanggigeji-tang, Bojungikki-tang

약물	升陽八物湯	升陽益氣湯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人蔘	8	8		12
白何首烏		4	4	
黃芪	8	8	8	12
白朮	4			4
白芍藥	4	8	8	
當歸	4	4	4	4
川芎	4			
陳皮				4
甘草炙	4	4	4	4
官桂	4	4		
桂枝		8	12	
藿香				2
蘇葉				2
生薑	3片	3片	3片	3片
大棗	2枚	2枚	2枚	2枚

*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g(그램)을 생략한 것임.

맞춘 약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陳皮가 太陰病의 많은 처방과 少陰病의 일부 처방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陳皮가 降陰에 초점을 맞춘 약물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表病人 鬱狂證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甲午本』에서는 太陽病表證因在 而小腹硬滿之病에서 胃家實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 ‘太陽膀胱으로부터 上升하는 陽氣가 膀胱의 寒氣를 떨쳐 내지 못하는 가운데 太陰大腸之氣또한 通快하지 못하고 凝結하여 胃家實이 된다²⁴⁾고 하여 表裏兼病의 단계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辛丑本』에서도 鬱狂證의 少腹硬滿을 ‘상한병에서 시일이 오래 가며 裏氣 역시 秘澁해진 것²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鬱狂證에도 裏氣가 秘澁하기 쉽다는 면에서 八物君子湯에 陳皮를 가해 裏陰降氣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黃芪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表病 중에서도 陽煖之氣가 위태로운 亡陽證에 주로 사용하여 脾陽

을 돕고 止汗하며 升陽을 이루는 약물이다. 따라서 八物君子湯에서는 그 용량을 줄여 1돈만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升陽八物湯에서 官桂(급하고 강하게 陽煖之氣 강화)를 거하고 陳皮(表裏陰陽의 升降 유도)를 가하며 黃芪(脾陽을 도와 升陽을 이룸)를 감하여 鬱狂證에 더욱 적합한 처방인 八物君子湯이 창방된다.

4)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升陽益氣湯

위에서 언급했듯이 升陽八物湯은 鬱狂證의 대표 처방인 八物君子湯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亡陽證의 升陽益氣湯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선 升陽八物湯과 亡陽初證 처방 3개의 구성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亡陽初證 처방 중 升陽益氣湯이 升陽八物湯과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升陽益氣湯의 8개 약물(生薑, 大棗 제외) 중 6개가 升陽八物湯의 약물과 겹치며(人蔘, 黃芪, 白芍藥, 當歸, 甘草, 官桂) 이 중 5개(人蔘, 黃芪, 當歸, 甘草, 官桂)는 용량도 일치한다. 특히 주요 약물 중 人蔘과 黃芪의 용량은 升陽八物湯과 같으며, 黃芪桂枝湯과 補中益氣湯에는 없는 官桂가 들어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升陽益氣湯의 기원 처방

24) 『甲午本』 7-28 太陽病 表證因在而小腹硬滿之病 始發於太陽膀胱之陽氣 不能逐寒氣而 太陰大腸之氣亦不通快而凝結則 其病爲胃家實而 危險之勢 終於潮熱直視也.

25) 『辛丑本』 9-16 少陰人 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 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 俱是表氣陰陽 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氣亦秘澁不和而變生此證也.

이 升陽八物湯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升陽益氣湯을 포함한 亡陽證 처방들은 黃芪桂枝湯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升陽益氣湯은 黃芪桂枝湯에 脾陽을 직접적으로 돕고 升陽의 효가 강한 人蔘, 內外를 가리지 않고 陽煖之氣를 강하게 돕는 官桂를 가함으로써 升陽八物湯의 升陽益氣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처방명에 ‘升陽’이라는 명칭을 공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甲午本』에서 胃家實과 脾約에 모두 쓰이던 升陽八物湯이 병증과 처방 처방이 구체화되는 『辛丑本』으로 오면서 鬱狂證에는 八物君子湯, 亡陽證에는 升陽益氣湯으로 맥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鬱狂證은 腎局의 寒氣 때문에 膀胱에서 背脊로 陽氣가 올라가지 못하고 울축하여 생기는 병증이며 다만 脾弱하지 않으므로 自汗不出한다. 따라서 脾陽을 돕는데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表裏陰陽의 升降을 돕는 白朮과 陳皮, 外攘之勢를 갖춘 川芎이 포함된 八物君子湯이 더욱 적합한 처방이 된다. 亡陽證도 큰 틀에서는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腎局의 寒氣 때문에 陽氣가 膀胱에 울축하여 생기는 병증이나 脾弱하기 때문에 自汗出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강하게 돕는 官桂, 脾陽을 도와 固表 작용하는 黃芪를 갖춘 升陽益氣湯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升陽八物湯은 鬱狂證에 더욱 적합한 八物君子湯으로 변천했으며, 黃芪桂枝湯을 기본으로 하는 亡陽證 처방 중에는 升陽益氣湯에 ‘升陽益氣’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를 그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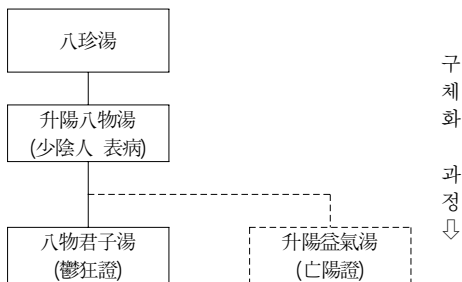


Figure 1. Change of Palmgunja-tang and Seungyangikki-tang

로 살펴보면 Figure 1과 같다.

5) 八物君子湯의 變方

八物君子湯의 變方(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獨蔘八物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처방 사이의 구별점인 人蔘과 白何首烏, 官桂 등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官桂를 제외한 人蔘과 白何首烏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人蔘은 『東武遺稿』에서 補脾和脾 大補元氣生津止渴 調營養衛한다고 하였으며 『辛丑本』에서는 白何首烏보다 清越之力이 뛰어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人蔘은 少陰人의 脾陽을 직접적으로 돕고 升陽益氣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약물이다. 이에 따라 人蔘은 少陰人의 여러 병증에 걸쳐 쓰이며 保命之主인 陽煖之氣가 부족한 경우(鬱狂末證, 亡陽末證, 少陰病 등)일수록 사용 용량이 증가한다. 특히 人蔘은 강하고 급하게 升陽益氣가 필요한 경우 다량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人蔘이 1냥씩 쓰이는 처방(獨蔘八物湯, 人蔘吳茱萸湯, 人蔘陳皮湯)의 용례를 살펴보면 鬱狂中末證에 獨蔘八物湯을 사용하는 예²⁶⁾, 正邪相傾之病으로 陽氣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太陽病 厥陰證과 太陰病 陰毒證에 각각 人蔘吳茱萸湯, 獨蔘八物湯²⁷⁾과 人蔘陳皮湯을 사용하는 예²⁸⁾등을 들 수 있다. 즉 清越之力이 뛰어난 人蔘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脾陽을 도와 升陽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辛丑本』에서는 白何首烏가 人蔘에 비해 清越之力이 不及하고 溫補之力이 過하다고 하였으며 險病 危證 등 人蔘이 2돈 이상 필요할 시에는 白何首烏로 人蔘을 대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赤白

26) 『辛丑本』 6-26 論曰 右論 皆以張仲景 大承氣湯 始作備而 可用不可用時候 難知。~此胃家實病 不更衣發狂證 當用巴豆全粒 或用獨蔘八物君子湯 或先用巴豆 後用八物君子湯以壓之。
 27) 『辛丑本』 6-47 ~ 此證 當謂之太陽病 厥陰證也。此證 不必用當歸四逆湯 桂麻各半湯而 當用蔘萸湯 人蔘吳茱萸湯 獨蔘八物湯。
 28) 『辛丑本』 7-15 論曰 右證 當用人蔘桂枝湯 人蔘附子理中湯。

何烏寬中湯과 白何首烏理中湯의 주요 약물로 白何首烏가 사용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白何首烏는 溫補의 效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白何首烏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升陽益氣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裏部의 冷氣를 축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生陽과 升陽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Table 3. Composition of Baekhaogunja-tang, Sipjondaebotang, Palmulgunja-tang, Doksampalmul-tang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獨蓼八物湯
人蔘		1	2	10
白何烏	2	1		
官桂		1		

*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g(그램)을 생략한 것임.

위의 내용을 근거로 白何烏君子湯을 八物君子湯과 비교해 보자. 白何烏君子湯은 人蔘이 빠지고 白何首烏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는 升陽益氣가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溫補를 통한 자연스러운 生陽과 升陽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白何首烏의 溫補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환자가 太陰病의 素證을 가지는 경우에 더욱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十全大補湯은 八物君子湯과 비교해, 人蔘 2돈 대신에 人蔘 白何首烏 官桂 1돈을 가한 처방으로 人蔘이 적고 白何首烏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면에서 八物君子湯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升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된다. 대신 白何烏君子湯과 비교했을 때는 白何首烏가 1돈 줄어든 대신 人蔘이 1돈 늘어남으로써 좀 더 직접적인 升陽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며 官桂를 가함으로써 溫補助陽의 效를 더욱 강화였다. 즉 十全大補湯은 白何烏君子湯과 八物君子湯 사이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獨蓼八物湯은 八物君子湯에 비해 人蔘의 용량을 다량 증량시킨 처방으로 鬱狂未證, 太陽病 厥陰證 등 急治가 필요한 상황에 쓰여 강하고 급하게 寒邪를 구축하고 升陽益氣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여 溫補를 통한 간접적인 升陽의 효과를

보는 처방에서 급하고 강하게 升陽 시키는 처방 순으로 나열하면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獨蓼八物湯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獨蓼八物湯에 대한 관련 조문 및 치험례가 부족하여 구성 약물을 통해서만 각 처방의 특징을 분석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구성원리

八物君子湯은 人蔘 2돈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 1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원 처방 및 변천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八珍湯 중 人蔘 白朮 當歸 白芍藥 川芎 甘草 6개의 약물이 기본이 된다.
 - 人蔘은 補脾和脾²⁹⁾하는 효능으로 脾局의 陽氣를 직접적으로 돕고 升陽益氣의 원동력이 된다.
 - 白朮은 健脾直脾³⁰⁾하는 효능으로 脾濕濁을 제거한다. 이를 바탕으로 陰陽의 升降을 돕는다.
 - 白芍藥의 收斂脾元³¹⁾ 하는 효능, 甘草의 固脾立脾³²⁾ 하는 효능, 當歸의 壯脾而有內守之功³³⁾ 하는 효능 川芎의 壯脾而有外攘之勢³⁴⁾ 하는 효능을 바탕으로 4개의 약물이 人蔘과 黃芪를 보조하여 脾元을 돕고 升陽益氣의 발판을 마련한다.
- 黃芪는 脾陽을 복돋아 補氣, 固表 한다. 따라서 人蔘과 함께 脾局의 陽氣를 직접적으로 돕고 升陽益氣를 완성한다.
- 陳皮는 흐트러진 脾元의 陽氣를 정돈하여 白朮과 함께 表裏陰陽의 升降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鬱狂證의 울축된 陽氣를 소통시킨다. 또한 鬱狂證으로 裏氣가 秘澁한 경우 陳皮와 白朮을 통해

29) 『東武遺稿』 補脾和脾 人蔘

30) 『東武遺稿』 白朮 健脾直脾

31) 『東武遺稿』 白芍藥 收斂脾元

32) 『東武遺稿』 炙甘草 固脾立脾

33) 『東武遺稿』 當歸 壯脾而有內守之功

34) 『東武遺稿』 川芎 壯脾而有外攘之勢

降陰을 유도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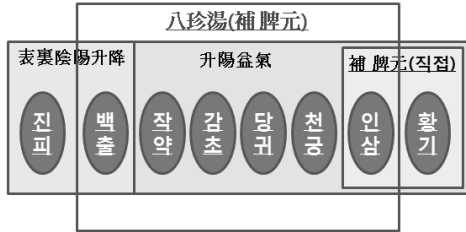


Figure 2. Composite principle of Palmulgunja-tang

IV. 結 論

八物君子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武遺稿』,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처방 및 병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八物君子湯의 기원 처방으로 『草本卷』의 八珍湯을 꼽을 수 있다. 八珍湯은 寒氣가 쉽게 생기는 少陰人의 脾元을 강화하는 처방이다.
2. 八珍湯은 『甲午本』의 升陽八物湯으로 변천한다. 『甲午本』에서는 偏小之臟, 保命之主를 중시하는 병증 약리관과 升陽益氣라는 少陰人 表病 치법이 확립되면서 陽煖之氣를 강하게 복돋는 官桂, 薤氣, 脾陽을 도와 升陽을 이루는 黃芪를 가하여 升陽八物湯을 창방한다.
3. 升陽八物湯에서 官桂(陽煖之氣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용)를 거하고 陳皮(表裏陰陽의 升降유도)를 가하며 黃芪(脾陽을 도와 固表)를 감하여 鬱狂證에 더욱 적합한 『辛丑本』의 八物君子湯이 창방된다.
4. 升陽八物湯의 升陽 정신은 亡陽證 처방 중 升陽益氣湯 창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八物君子湯은 清越之力이 강한 人蔘, 溫補助陽之力이 강한 白何首烏, 溫補助陽의 효를 갖는 官

桂의 용량 차이에 따라 變方을 만드는데,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八物君子湯, 獨蔘八物湯 으로 갈수록 강하고 급하게 升陽의 효과를 갖는 처방이다.

6. 八物君子湯은 白芍藥, 甘草, 當歸, 川芎을 통해 脾元을 보하고, 人蔘 黃芪를 통해 升陽益氣하며 白朮, 陳皮를 통해 表裏陰陽升降을 조절한다.

V. 參 考 文 獻

1. Ok YY, Kim KY. Study on history of prescription through comparison Sasang -Yihak - Chobonguen with Dongyi - Soose - Bowon. J Sasang Constitut Med. 2000; 12(2):43-55.(Korean).
2. Bae H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eumin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 14(1):10-25.(Korean)
3. Lim JN, Lee EJ, Koh BH, Song IB. Comparison with 'Gu-Bon' and 'In-Bon' on Symptom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J Sasang Constitut Med. 2001; 13(2):62-73.(Korean)